남구, 세계양궁대회 기간 '글로벌 야시장' 운영

작년 첫 선 '군분로 토요야시장'
내달 4차례…올핸 K-야시장으로
무등시장-신우신협 1.1㎞ 구간
먹거리·K-POP·전통놀이 등 풍성

광주 남구가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대회 기간 글로벌 야시장을 운영한다.

남구는 3일 "다음 달 6-27일 매주 토요일 무등시장 군분로 일대에서 'K-야시장'을 열고 국내외 방문객에게 광주만의 매력을 담은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의 밤, 활짝 열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 기간 무등시장 입구부터 월산동 신우신협 본점까지 1.1㎞ 구간에는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마련된다.

행사장은 공연·무대존, 향토음식 및 글로벌 푸드존, 전통놀이 및 체험존, 특별행사존 등으로 구성된다.

공연존에는 ▲K-POP 댄스 ▲KJN 파워댄스 ▲국악·사물놀이 ▲사직동 통기타 거리 공연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먹거리존에는 군분로와 무등시장 상인이 참여한 지역 향토 음식 50개 점포와 글로벌 푸드존 6곳이 참여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아동친화 점포도 함께 운영된다.

체험존에서는 광주콩센터, 빛고을 공예창작존, 펭귄마을 입주 작가 등이 참여해 ▲떡메치기 ▲도자기·금속·종이 공예 ▲윷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행사존에는 광주 관광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되며 무등산 보리밥, 주먹밥, 상추튀김 등 광주 대표 7가지 먹거리 시식은 물론, 관광 기념품 판매, 태권도 시범, 양궁 테마 체험, 경품 룰렛 이벤트, 고추마켓(벼룩시장) 등도 진행된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첫선을 보인 군분로 토요야시장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올해는 국제대회를 맞아 더욱 풍성한 콘텐츠로 광주의 이름을 세계 곳곳에 알리는 K-야시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다음 달 5-28일 광주국제양궁장 및 5·18민주광장에서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다. /주성학 기자

동구 김냇과서 지역 전시 활성화 '아침놀' 오픈

인구 감소 지역인 광주 동구의 김냇과에서 지난 1일 전시 '아침놀'이 열려 임택 동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시 '아침놀'은 예술공간 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한 '2025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개최됐다. 〈광주동구 제공〉

동구 "공익소송 비용 신청하세요"

2023년부터 심급별 1천만원 지원
변호사비 등…"재판 청구권 보장"

광주 동구가 주민 권익 보호와 공익 실현을 위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 홍보에 나섰다.

3일 동구에 따르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는 지난 2023년부터 도입됐다.

도입 취지는 구민들이 인권, 환경, 복지 등 공익적 사안에 대한 소송을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과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사안이다.

단, 동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 개인 간 사적 분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 동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익소송지원위원회'가 대상 적합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이후 소송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최종 지급된다.

동구는 1·2·3심 등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 내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익소송은 인권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권익을 증진시키는 핵심 수단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익을 위한 개인의 법적 노력이 외롭지 않도록 동구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서구, '장애인 맞춤형 의료돌봄' 본격화

광주 서구는 3일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기존 고령자 중심의 기존 의료돌봄 서비스가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서구는 나이와 특성에 맞춰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미만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이들이다. 주요 서비스는 ▲의료진 방문 건강관리(방문의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균형 잡힌 식사 제공 ▲외출 및 병원 방문 시 동행 지원 ▲주거지 방역·방충 등이다. /주성학 기자

광산구,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 추진

실태조사·사업주 교육·상담소 등

광주 광산구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평동·하남산단 등 관내 산업단지에 종사 중인 이주노동자 1천489명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나주에서 불거진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 사건을 계기로 노동 현장에서 이주민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사업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고용 사업주 대상 인권 교육 ▲노동·인권 상담소 운영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대규모 단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광산구는 고용 현황과 노동 환경, 인권 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광산구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4회, 구청 1층 통합라운지 내 상담소에서 주말 및 휴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회당 3시간씩 총 16회 운영된다.

상담소에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통역사가 상주해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주노동자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옥근 기자

북구, '드론자유화구역' 3연속 지정…저변 확대 박차

2027년 7월까지…2021년부터 유지
5개 기관·업체 비즈니스 모델 실증 '힘'

광주 북구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또 한 번 지정돼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에 나선다.

3일 북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시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3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 시 필요한 특별감항증명,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드론 개발 기관·업체들이 자유롭게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다.

북구는 지난 2021년 광주에서 유일하게 첨단산단 및 영산강변 일원(10.3㎢)이 1차 드론 특구로 지정됐으며 2023년과 올해까지 3회 연속 지정되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2027년 7월28일까지 운영하게 됐다.

특히 이번 3차 지정 시 북구에서 추가로 신청한 석곡동 인근 산지 지역 18.6㎢가 특구에 포함돼 북구 내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은 총 28.9㎢ 규모로 확장됐다.

드론 특구 지정에 따라 ㈜호그린에어, 한국광기술원, ㈜공간정보, ㈜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 기관·업체가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실증에 나선다. /안재영 기자